

부산일보



(2면)

2 판 제 19917 호

동남권 대표신문 www.busanilbo.com

2008년 11월 3일 월요일 (음력 10월 6일)

종합

부산일보

한·일해저터널 사업 정부차원 추진

대통령실장, 국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적극 검토하겠다”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청와대 관계자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검토 입장 표명에 따라 중앙 정부 차원의 추진 사항이 될 전망이다.

김정권 의원(한나라당·경남 김해갑)은 지난 31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한일해저터널의

타당성과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이 있었다고 3일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일해저터널은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판단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의 검토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

했다.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용의가 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 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를 공언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한일터

널 연결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국가차원으로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부산발전연구원은 지난 30일 오후 부산상수도사업본부 10층 회의실에서 (사)한일터널연구회(공동대표 서의택, 이용흠), (사)일한터널연구회(회장 노자와 다이조)와 공동으로 ‘한일터널과 동북아 통합교통망 구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계식 부산발전연구원장은 “부산~후쿠오카를 직접 연결하는 한일해저터널을 통한 통합교통망 구축이 양 도시의 초국경 광역경제권 형성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병철 기자 peter@

釜山日報 2008年11月3日 総合

韓日海底トンネル事業を政府次元で推進

大統領室長、国政監査で「予備妥当性調査を積極的に検討」

釜山市と釜山発展研究院のレベルで始まっている韓日海底トンネル建設が、青瓦台関係者の予備妥当性調査実施検討の立場表明により中央政府レベルの推進事項となる見込みだ。

キム・ジョンゴン（金正権）議員（ハンナラ党、慶尚南道、金海甲選出）は、去る31日、大統領室に対する国会運営委員会の国政監査で、現在論議されている韓日海底トンネルの妥当性と調査実施について意見した結果、このような内容の答弁があったことを3日伝えた。

キム議員はこの日、国政監査で「韓日海底トンネルは、必要性および可能性について賛否両論が対立しており、客観的な判断をための体系的な研究が必要だ」とし、「政府次元で予備妥当性調査レベルの検討のための予算づけする意向はないのか」質問した。

チョン・ジョンギル（鄭正佶）大統領秘書室長はそれに対し、「韓日海底トンネルに対する予備妥当性調査をする用意があり積極的に検討する」と答弁したというものだ。

キム議員はこれらチョン室長の答弁内容について「大統領室で韓日海底トンネルについて公式的な立場を表明し、予備妥当性調査実施を公言したことは始めて」とし、これは韓日トンネル連結問題の論議を国家レベルで公式化したことに意味があると分析した。

一方、釜山発展研究院は去る30日午後、釜山上水道事業本部10階の会議室で社団法人韓日トンネル研究会（共同代表、ソ・イテク（徐義澤）イ・ヨンフム（李龍欽））、社団法人日韓トンネル研究会（会長、野澤太三）と共同で「韓日トンネルと東北アジア統合交通網構築」をテーマとするセミナーを開催した。この日のセミナーでイ・ゲイシク（李啓植）釜山発展研究院長は「釜山～福岡を直接結ぶ韓日海底トンネルを通じた統合交通網の構築が、両都市の超国境広域経済圏の形成に必須」と語った。